

# DAERYUN NEWSLETTER



법무법인(유한)대륜



165인의 전문변호사



해결사례



대륜의 기업외판인

## 법률정보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1분기 마약사범 4000명 이상**  
 -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3월 적발 마약사범,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



**47번째 흉악범 신상공개...공개기준 구체화 등 보완 필요**  
 - 2010년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근거 두고 시행...기준 오락가락 비판 목소리



**급발진 의심 사고 연간 최대 50건 발생...인정 사례는 '0건'**  
 - 사고 원인 규명 어려워 자동차 제조사의 사고 원인 입증 책임 강화 필요 목소리로



법무법인(유한)대륜  
 @Daeryun\_Lawfirm

유튜브 바로가기 →



자녀 성본 변경 전 꼭 확인하세요.



재판 중 최후 진술 감형 받을 수 있는 꿀팁은?

## 일상 속 법률 퀴즈 O X

재판에서 선고가 끝난 후,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를 문제삼아  
 판사의 마음대로 이미 선고된 형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O

공판 기일 종료시까지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니, 재선고를 해도 문제가 없다!

X

이미 선고가 진행되었으니  
 마음대로 형량을 늘릴 수는 없다!

\* 하단에서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활동

최성호, 김인원, 전효철 변호사 시기·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집행유예 판결  
 명의도용·건강보험 부정수급 등 장기간 다양한 혐의가 경합되었으나 실형을 면함



정우영, 권지혜, 김용태 변호사 전세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제1심 무죄확률 1%미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찾아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



김경환, 정사봉, 김광덕 변호사 1억원 규모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  
 사고 전, 후의 정황과 기지급 보상금여 등을 고려한 대응으로 역대 손해배상금 인용



## 미디어 속 대륜

언론보도 더보기 →

|       |  |   |
|-------|--|---|
| 이데일리  | 아모레 짝퉁 사은품 증정 논란... "모방 아나" vs "법 위반"    | + |
| 제민일보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 산업재해, 책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돼 | + |
| 더피플뉴스 | 도산에 따른 개인회생, 신중하게 절차 진행해야                | + |

## 사무소 개소안내

전국 32개 지점안내 →

원주사무소 개소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호~507호

강원권역 지역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재고하고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근처 건물인 시네시티타워에 원주사무소를 신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 가까이에서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전국 어디에서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      |      |      |
|------|------|------|------|------|
| 서울본사 | 서울본부 | 서울중앙 | 서울남부 | 서울북부 |
| 부산본부 | 부산   | 부산서부 | 대구   | 인천   |
| 광주   | 대전   | 울산   | 수원   | 고양   |
| 창원   | 성남   | 청주   | 부천   | 남양주  |
| 천안   | 전주   | 안산   | 평택   | 포항   |
| 의정부  | 원주   | 춘천   | 진주   | 순천   |
| 목포   | 제주   |      |      |      |

## 법률 퀴즈 정답



판결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경우
- 판결의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법무법인(유한)대륜  
 DAERYUN LAW FIRM LLC

대표번호 1800-7905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